

#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신사회계층 정책에 관한 연구: 통일전선 관점에서

윤태희\*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br>정책의 변화와 평가 |
| II. 시진핑 시기 이전 신사회계층의<br>형성과 정책 변화 | IV. 결론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의 신사회계층에 대한 정책을 통일전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부상한 신사회계층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로 정의되었고, 통일전선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으로,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의 양적인 성장은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념적 분류 또한 변화가 발생되었다. 더 나아가 국가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의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화 강조, 신사회계층국 설립, 전국 통전공작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는 더욱 구체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신사회계층 연의조직, 신사회계층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 신사회계층 봉사단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일련의 정책들은 당국의 관점에서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적 영향력의 강화, 신사회계층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의 확대, 신사회계층의 광범위한 결집 촉진 가능성의 제시 등의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한편으로 신사회계층의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인한 조직화의 난제, 신사회계층 연의조직 활동의 한계, 신사회계층의 조직화에 대한 저조한 참여 등의 과제도 노출하였다. 이처럼 본 연

\* 상명대학교 중국어권지역학전공 조교수

구는 개혁기 빠르게 성장한 신사회계층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일련의 정책들의 현실적 의미를 고찰하며,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 정책의 다양한 흐름의 성과와 과제 및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제어: 중국, 통일전선, 중국 공산당, 신사회계층, 시진핑

## I. 서론

1920년대 초반 공산당이 도입한 ‘통일전선(統一戰線)’은 사회적 혁명의 역사적 단계를 고려한 당의 계급적 모순에 대한 일시적인 유보와 민족 혁명으로 상징되었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더욱 포괄적인 연대의 모색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공산당의 다른 정당, 사회 세력과의 협력, 영도 하의 연대 및 포섭과 통제를 통한 잠재적인 반대세력 제거의 능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De Giori 2015).<sup>1)</sup> 이러한 통일전선의 방침은 시진핑 시기 ‘대통일전선(大統戰)’에 대한 강조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으며(Liao and Tsai 2019; Wang and Groot 2018),<sup>2)</sup> 이는 민족문제와 종교문제(Zhao and Leibold 2020; Groot 2019; Groot 2017), 사영분야 관련 정책(Dotson 2020; Almen and Carlsson 2025), 홍콩과 타이완 관련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Groot 2016; Groot 2022; Hsiao 2021), 해외 다양한 국가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Gill and Schreer 2018; Brady 2018; Joske 2020). 특히, 선행연구는 개혁개방 이

1)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일전선은 최우선과제로 간주되는 주요 모순의 극복을 위해 부차적인 모순과 동질성을 기반으로 일시적 연대 또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민 2016; 표나리 2023). 통일전선은 1920년대 중국 공산당 수립 이후 공산당의 정권장악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 화교에 대한 역량 동원 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전략으로 평가된다(이병주·김기훈 2002; 최승현 2016; 배정호 2020).

2)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시진핑 시기 중앙 통일전선 영도소조(中央統一戰線領導小組)의 설립과 통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간부들의 충원(Jourda 2024), 기존 국무원이 담당하던 종교 및 화교 관련 업무의 흡수와 다양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통일전선부의 조직적 개편 등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Groot 2018; Joske 2019).

후 다원화된 사회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통일전선이 강조되었고(Eto 2022), 시진핑 시기에는 개혁기 새롭게 출현한 신사회계층 집단에 대한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신사회계층국의 신설 및 통일전선 업무의 전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음을 지적하였다(Suzuki 2019; Groot 2015; Beaumelle 2017).

신사회계층(新的社會階層)은 개혁개방 이후 점진적으로 출현하여 시장경제의 지속 발전 속에서 성장한 일부 사회집단을 통칭하는 용어로(張海東 2019; 周建勇 2021), 개혁기 사회 분화와 시장화의 흐름 속에서, 공유제 외부와 체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형성과 발전을 거듭한 새로운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雷明貴 2018; 李培林 2021).<sup>3)</sup> 개혁기 신사회계층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建設者)’로 공인되었고(王繼宣 2001; 潘衛東 2002), 시진핑 시기 ‘건설자’의 위치에서 중국식 현대화(中國式現代化)의 추진을 위한 ‘건설력(建設力)’에 기여할 것을 기대받는 집단으로 대두되었다(王智·方錦波 2026; 叶子鵬·杜曉童 2026).<sup>4)</sup> 이러한 맥락에서, 일

3) 신사회계층이라는 용어는 중국적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한 용어로(李培林 2017), 통일전선의 맥락 속에서 당에 의해서 최초로 언급된 표현이다(張海東·楊城晨 2018; 張海東 2021). 중국적 맥락의 신사회계층은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관리기술직(사영기업과 외자기업에 고용되어 기업의 핵심기술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집단), 중개조직과 사회조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리사 등 지식 기반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구 종사자 및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 종사자), 프리랜서(경제조직, 사업단위 혹은 정부 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국가의 법률과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집단), 뉴미디어 종사자(뉴미디어를 플랫폼 혹은 대상으로 하여 직접 또는 특정 기관을 대표하여 금융, 기술 개발, 콘텐츠 생산과 확산, 경영관리 활동의 종사자로 뉴미디어 기업 투자자, 경영관리직, 취재와 편집 인력 및 기술직 등을 포함) 등의 사회적 집단을 포괄한다(李路路 2017a; 廉思 外 2017). 신사회계층은 개혁개방 이전 전통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新)’ 사회집단으로(李路路 2017 b), 사영분야(非公有制經濟)와 당과 정부가 직접 관할하지 않는 일자리에 위치한 체제 외부에 존재하며(李强 外 2017), 높은 학력, 높은 소득, 높은 직업적 유동성 등의 특성과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 및 사회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 등의 특징을 지닌 ‘체제 외부의 신중산층(體制外新中產)’으로도 볼 수 있다(李春玲 2017; 李强 2017; 袁博·張海東 2023; 張海東·袁博 2023).

4) 이처럼 개혁개방 이후 신사회계층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중국의 신사회계층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들이 전개되었다. 많은 중국 국내 선행연구들은 신사회계층의 발전과정(張林江 2017; 馮波·陳軍 2022), 신사회계층의 개념적 유래와 의미(李路路 2017a; 李小宁·路璐 2018), 신사회계층의 특징과 현황 등 신사회계층의 일반적인 특성을 검토하는 한편(廉思 外 2016; 張海東 等 2017), 신사회계층의 사회적 심리와 정체성(王俊秀 2018; 張海東

부 선행연구들은 공동부유(郭紅霞·王珊 2024; 張波 2025), 중국식 현대화(蘇文婷 2024; 劉樹燕 2025), 고품질 발전(胡芬芳 2021; 黃佳慧 2022), 신품질 생산력 등 당국이 추진하는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신사회계층의 공헌 가능성에 주목하였다(黃曉翠 2025; 權宗田·李明龍 2025).

신사회계층은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통일전선 대상 중 하나로 정의된다.<sup>5)</sup>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여 신사회계층의 발전을 격려하는 한편(宋華忠 2014; 張海東 2021), 이들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일전선 방침을 제시하였는데(林延斌 2020; 郝麗 2021), 이러한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의 수행은 시진핑 시기 더욱 중시되었다(左玲·何虹 2023; 李冬梅·韓帥 2023).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은 당외 지식분자(黨外知識分子)와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전면 관철되어야 할 ‘12개 필수(十二個必須)’ 중의 하나로 강조하는 한편(中共中央統一戰線工作部 2024; 張彩雲 2024), 신사회계층 통일전선 업무 관련 전문 기구의 설립과 방침 제시, 전국적 규모의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의 체계화를 추진하였다(黃天柱 2018; 周述杰 2018). 또한, 선행 연구들은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통일전선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조직화의 방침이 강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胡芬芳·余武丞 2019; 張彩雲 2020), 이를 위해 추진된 실천 혁신기지(徐軍 2018; 武漢市社會主義學院·漢陽區委統戰部聯合課題組 2019), 연의조직의 건설 등을 검토하였다(李楠 2023; 張偉偉·陳夢璐 2025).

이처럼 중국 국내에서는 통일전선의 신사회계층의 부상과 이를 둘러싼 당국의 조직화의 방침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 변화 등 다양한 연구가 제시되었으나, 중국 외부에서는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하여 갈수록 구체적이고 체계화되는 통일전선적 맥락에서의 정책적 변화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어떠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sup>6)</sup> 본문은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

외 2021; 王星·魏心怡 2018; 劉少杰·周驥騰 2022), 정치참여와 사회 거버넌스 참여 문제 등 신사회계층에 관한 다양한 현안들을 검토하였다(吳雪燕·盧勇 2018; 黃安 2022; 張海東·杜平 2018; 孫濤 2019).

5)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https://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 (2025년 11월 30일 검색)

6) 예를 들어, 국문 선행연구들은 현대 중국적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의 사회단체 및 종교에

당의 신사회계층에 대한 정책을 통일전선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은 이하의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신사회계층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으며, 통일전선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통일전선적 관점에서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셋째, 시진핑 시기 전개된 일련의 신사회계층에 관한 정책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을 기반으로 본문은 이하의 내용을 주장한다. 첫째,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사회 구조의 거대한 전환과 비공유제 분야의 형성과 발전 속에서 신사회계층은 빠르게 부상하였고, 중국 공산당은 신사회계층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로 정의하는 한편,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업무의 구체화를 추진하였다. 둘째,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의 양적 성장은 지속되었고, 이를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통일전선 업무의 방침으로 ‘조직화’가 제시되는 한편, 신사회계층국의 설립, 신사회계층 통전공작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전의 청사진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셋째, 신사회계층 통전 업무의 기본 방침 수립 이후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수립, 신사회계층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의 건설, 신사회계층 봉사단의 설립 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당국의 입장에서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적인 영향력 강화, 국가와 신사회계층 간의 접촉 및 상호작용의 확대, 신사회계층의 광범위한 결집 가능성 확대 등의 성과를 가져다주었으나, 신사회계층의 특성에 따른 높은 조직화의 난이도, 신사회계층 연의조직 활동의 한계, 신사회계층의 조직화에 대한 저조한 참여 등의 과제 또한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한 정책 등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방침이 발휘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으며(마인호 2014; 김성민 2016),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해외 영향력 확대에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이지용 2021; 표나리 2023). 그 외에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련의 다양한 영문 선행연구들은 시진핑 시기 대두되는 민족문제와 종교문제, 사영분야, 홍콩과 타이완, 해외로의 영향력 확대 등의 측면에서 통일전선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일부 신사회계층 관련 정책 변화를 언급한 연구들(Eto 2022; Suzuki 2019; Groot 2015; Beaumelle 2017) 역시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영문 및 국문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적 관점에서의 정책 변화를 보완적으로 제시한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Ⅱ. 시진핑 시기 이전 신사회계층의 형성과 정책 변화

1978년 이래 지속된 개혁개방은 중국 사회 구조에 전례 없는 거대한 전환을 초래하였다(李路路 2017a; 李春玲 2017). 개혁개방 이전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과 지식인 계층(工人階級, 農民階級, 知識分子階層)’의 특징을 지녔던 중국의 사회 구조는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고속 성장 속에서 도농 구조(城鄉結構), 직업 구조(職業結構)의 변화와 다양한 소유제의 부상 속에서 복잡하고 다원적인 특징을 가진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사회 구조로 변모하였다(陸學藝 2010; 張海東·楊城晨 2018; 李春玲 2019). 특히 이 과정에서 사영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등 비공유제 분야의 형성과 발전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신사회계층의 출현을 추동하였다(王浩斌 2010; 張海東·杜平 2017).<sup>7)</sup>

중국 공산당은 1991년부터 개혁개방 이후 계층 분화와 그에 따라 초래된 새롭게 부상한 집단의 출현에 대하여 신사회계층이라는 용어를 통해 통일전선적 범주 내에 이를 포괄하고자 하였다(海群 2020; 徐軍 2023a). 구체적으로, 1991년 중앙 통전부는 <공상련의 약간 문제에 관한 지시(關於工商聯若干問題的請示)>를 통해서 ‘현재의 사영기업주 등의 신사회계층(新的社會階層)에 대하여, 과거의 공상업자와 같이 동등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50년대와 같이 사회주의 개조를 진행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를

7) 구체적으로, 1978년의 11기3중전회(十一屆三中全會)를 통해 개혁개방이 결정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개체호 및 사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였고,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을 용인하였다(張海東·楊城晨 2022; 張莉莉·万曦 2010; 姜力 2007). 그에 따라, 1978년 종사자 14만 명 수준에 불과하던 개체공상호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개체공상호 1,417만 호, 종사자 수는 2,092만 명, 등록자금은 397억 위안에 달하게 되었으며, 개혁개방 이후 재부상한 사영기업 역시 1990년 9.8만 개, 고용인원 148만 명, 등록자금은 95억 위안에 이르게 되었다(亞洲開發銀行 2003; 姜力 2007; 李小宁 外 2009; 路聯·李小宁 2018), 한편으로, 개혁개방 이후 1990년까지 29,525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롭게 설립되었고, 실제 투자 유치 금액 역시 약 20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21).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국 사회에는 사영기업, 개체공상호, 민영과학기술기업 창업자와 기술직, 외자기업 관리기술직 등의 다양한 집단들이 출현하게 되었다(中共江蘇省委統戰部, 江蘇省社會科學院聯合課題組 2007).

통해 중앙 문건에서 최초로 신사회계층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張海東 2021). 다만, 이 시기 신사회계층이라는 용어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집단을 묘사하는 성격의 칭호로 평가되었고(海群 2020; 叶敏 2017), 당시 중앙문건에서 제시된 신사회계층이라는 용어는 주로 개체공상호, 사영기업주 등의 비공유제 경제의 인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었다(徐軍 2023; 朱小宝 2018).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중국 공산당의 사영분야 발전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진 이후 개체경제, 사영경제, 삼자기업(三資企業) 등의 사영분야는 더욱 발전하여 신사회계층의 부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周述杰 2006; 張師平 2017).<sup>8)</sup> 그에 따라, 2001년 7월 1일, 당시 국가 최고지도자인 장쩌민(江澤民)은 중국공산당 창립 80주년 대회(中國共產黨成立八十周年大會)에서 개혁기 새롭게 출현한 민영 과학기술 기업 창업자와 기술직(民營科技企業的創業人員和技術人員), 외자기업에 고용된 관리기술직(受聘于外資企業的管理技術人員), 개체호(个体戶), 사영기업주(私營企業主), 중개조직 종사자(中介組織的從業人員), 프리랜서(自由職業人員) 등 6부류의 신사회계층이 성실한 노동과 합법적인 경영활동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과 기타 사업에 공헌하였음을 천명하는 동시에, 이들을 노동자, 농민, 지식인, 간부와 해방군 장병 등과 같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로 언급하여 신사회계층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로 새롭게 정의하였다(姜力 2010; 張峰 2015).<sup>9)</sup>

이러한 신사회계층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더욱 구체성을 지니게 되었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신사회계층은 성장을 지속하였는데, 2007년 당시 통전부 부부장(統戰部副部長) 천시칭(陳喜慶)에 따르

8) 특히, 이 시기 국유기업의 소유권 전환, 전문직 및 관료들의 시장영역 진출(下海)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는데(Wu and Xie 2003; Garnaut et al. 2006), 이는 다양한 집단의 사영분야 진출과 그에 따른 기업 내 기술관리직 종사자의 확대와 민영비기업단위 종사자, 중개조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周述杰 2006; 李培林 2021; 常慶林 2021).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01년까지 도시 사영분야 종사자 수는 4,329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중 외국인(外商) 투자기업 및 홍콩·마카오·타이완(港澳台) 투자기업 종사자 수는 671만 명, 개체 및 사영기업 종사자 수는 3,658만 명에 달하는 등 신사회계층은 중국 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李洪祥 2005).

9) 中國新聞網, <https://www.chinanews.com.cn/2001-07-02/26/101847.html>. (2025년 11월 22일 검색)

면, 중국 전역에는 5,000만 명의 신사회계층이 존재하며(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약 1억 5,000만 명), 이들은 약 10조 위안에 달하는 자본의 장악 또는 관리, 전국 절반 이상의 기술 특허의 이용, 전국 세입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헌, 매년 신규 취업 인원의 절반 이상의 흡수 등의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 평가되었다.<sup>10)</sup>

2006년 7월 개최된 제20차 전국 통전공작회의(第二十次全國統戰工作會議)는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전업무의 이론과 정책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회의로 평가된다(侯德泉 2007; 董曉婧·朱婷 2007). 구체적으로, 해당 회의에서 후진타오는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출현한 신사회계층이 주로 사영분야 인사(非公有制經濟人士) 및 자유 업종 선택의 지식인(自由擇業的知識分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들이 신경제조직(新經濟組織) 및 신사회조직(新社會組織)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1)</sup> 더 나아가 후진타오는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가 당의 균중업무의 새로운 영역(新領域)이며, 통일전선에서 해당 업무를 새로운 중점과제(着力點)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2)</sup> 이처럼 후진타오 시기 신

10) 央視網, <https://news.cctv.com/china/20070611/100139.shtml>. (2025년 11월 23일 검색). 한편으로, 신사회계층이 중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02년 11월 16차 당대회를 통해 신사회계층은 공식적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朱燕 2017; 張若云 2024). 신사회계층을 지칭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의 칭호는 2004년 각각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수정안(中華人民共和國憲法修正案, 이하 헌법 수정안)>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관수정안(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章程修正案, 이하 인민정협 정관 수정안)>에 포함되어 신사회계층은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받는 한편,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劉國皇 2008; 謝偉 2009).

11) 中國改革信息庫, <http://www.reformdata.org/2006/0710/5018.shtml>. (2025년 11월 22일 검색). 한편으로, <중공중앙의 신세기 신단계 통일전선 공고와 강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關於鞏固和壯大新世紀新階段統一戰線的意見)>은 구체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출현한 민영과학기술기업 창업자와 기술직, 외자기업의 기술관리직, 개체호, 사영기업주, 중개조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신사회계층으로 제시하였다. 共產黨員網, <https://news.12371.cn/2015/03/12/ARTI1426133444380553.shtml>. (2025년 11월 22일 검색)

12) 이러한 맥락에서 후진타오는 통일전선이 신사회계층에 대한 업무 방침으로 ‘충분한 존중(充分尊重), 광범위한 연계(廣泛聯系), 단결의 강화(加強團結), 열정적인 도움(熱情幫助), 적극적인 인도(積極引導)’의 20자 방침을 제시하는 한편(曹麗薇·趙明陽 2006; 李仁質 2012), 사회단체를 연결고리로(社團爲紐帶), 사구를 거점으로(社區爲依托), 온라인을 매개체로(網絡爲媒介), 활동을 수단으로(活動爲抓手) 신사회계층 업무를 수행하여 신사회계층을 더욱 광범위하게 당과 정부의 주위에 단결시킬 것을 요구하

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는 새로운 중점과제로 부상하였고, 업무의 방침과 방식 등에서도 구체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후진타오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역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사회계층은 공업, 무역, 건축업, 요식업, 부동산, 법률 서비스업,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업종과 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유동성과 복잡성, 불확실성을 지닌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신사회계층의 높은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신사회계층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파악과 통일전선 업무 수행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陸學東 2011; 張林·魏常雷 2012).

둘째, 신사회계층은 개혁개방 이후 ‘체제’ 외부에 존재하며, 주관 단위 및 부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계 및 소통의 효과적인 기제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체제 외부에 위치한 신사회계층에 대하여 느슨해진 관리 및 효과적인 연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趙秀忠·宋書偉 2007).

셋째, 신사회계층 통일전선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기제의 확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형성된 집단인 신사회계층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통일전선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 기제의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何鳳梅·宋玉忠 2012; 王勇 2012). 이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사회계층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 되었으나, 신속한 성장에 비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단결 인도의 강화가 필요한 중요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이해되었다(中央統戰部八局課題組 2017).

요컨대, 개혁기 중국 사회구조의 변화와 비공유제 분야의 형성과 발전 속에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집단들이 출현하였으며, 2001년 당시 국가 최고지도자 장쩌민은 개혁기 새롭게 출현한 민영 과학기술 기업 창업자와 기술직, 외자기업에 고용된 관리기술직, 개체호, 사영기업주, 중개조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6부류의 신사회계층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로 명명하였다. 후진타오 시기 신사회계층의 성장은 지속되었고, 이들

---

였다(肖太福 2008; 宁可 2014).

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 또한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신사회계층의 높은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 수행의 난이도를 더욱 높이는 문제를 불러왔으며, 개혁기 체제 외부에 위치한 신사회계층에 대한 효과적 연계 방식의 부재 및 체계적인 업무 기제의 확립의 미비 등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결 인도의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Ⅲ.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평가

#### 1. 신사회계층에 대한 방침과 제도의 정비

한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 등의 경제사회적인 변화는 새로운 업종의 출현을 초래하였고, 신사회계층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였다(陳喜慶 2012; 李强 2017; 孫信·趙妍 2021; 陳喜慶 2022).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사회계층의 범주에 대한 당국의 정의 역시 변화가 초래되었다(張海東 2021; 何虎生 外 2024). 구체적으로, 2013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十二屆全國人大一次會議)에서 시진핑(習近平)은 비공유제경제인사와 기타 신사회계층인사가 자격을 갖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여 ‘비공유제경제인사’와 ‘신사회계층인사’를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는데(王喆 2020; 冉德睿 2023),<sup>13)</sup> 이는 개체호와 사영기업주 등의 사영분야 종사자는 더 이상 신사회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하였다(胡芬芳·李艷霞 2021).<sup>14)</sup>

13)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dhhd/2013-03/17/content\\_2356344.htm](https://www.gov.cn/dhhd/2013-03/17/content_2356344.htm). (2025년 11월 23일 검색)

14) 이에 대하여 朱燕(2017)은 신사회계층으로 재차 분류된 집단이 높은 수준의 학력과 전문 기술을 보유한 고소득 직종의 종사자이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비공유제 경제인사(사영분야 종사자)와 달리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지적 노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지식인으로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朱燕(2017)은 신사회계층의 교육 배경과 업무의 활동과정에서 서구의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9월 발표된 중국 공산당 최초의 통일전선 업무에 관한 당내 법규(法規)인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공작조례(시행)(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條例(試行))>은 신사회계층을 비공유제 경제인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통전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侯天佐·孫繼蓆 2018; 劉騰飛 2019; 黃西勤 2021),<sup>15)</sup> 2020년 12월의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조례(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條例, 이하 통일전선 공작조례)>는 신사회계층에 해당하는 집단을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관리기술직 종사자(民營企業和外資企業的管理技術人員), 중개조직과 사회조직의 종사자(中介組織和社會組織從業人員), 프리랜서(自由職業人員), 뉴미디어 종사자(新媒體從業人員) 등으로 공식 제도화하였다(丁藝龍·戴彩雲 2023).<sup>16)</sup>

이러한 개념적 변화 속에서 신사회계층의 양적인 성장은 지속되었다. 2017년 1월 중공중앙 통전부 선전판공실(中共中央統戰部宣傳辦)은 민영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관리직 종사자는 약 4,800만 명, 중개조직과 사회조직 종사자는 약 1,400만 명, 프리랜서 1,100만 명, 뉴미디어 종사자 약 1,000만 명 등인데, 각 유형의 집단 간에는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는 경우 중국의 신사회계층의 규모는 약 7,2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張海東 2019; 費凡 2019).<sup>17)</sup> 이러한 신사회계층의 규모는 2021년에는 9,100만 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1,900만 명, 26.3%가 증가하여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은

보편적 가치나 입헌 민주주의 등의 사상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에 특화된 사상인도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15) 人民網, <https://cpc.people.com.cn/n/2015/0923/c64107-27622040.html>. (2025년 11월 23일 검색)

16) <통일전선 공작조례>의 전문은 이하의 내용을 참고.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https://www.gov.cn/zhengce/2021-01/05/content_5577289.htm). (2025년 11월 30일 검색) 신사회계층에 해당하는 집단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2015년 8월과 10월 중앙통전부의 위챗 공식 계정(微信公眾號)인 통전신어(統戰新語)에서 발표한 <당신은 “신사회계층인사”입니까? (你是“新的社會階層人士”么?)> 및 <“신사회계층인사”에 대한 재해석(再解“新的社會階層人士”)>의 두 편의 글에서 우선적으로 소개되었으며(李彥博 2018), 2017년 2월의 전국 신사회계층 통일전선 공작회의(全國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會) 이후 발표된 중공중앙 판공청(中共中央辦公廳)의 <신사회계층 통전 업무의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加強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的意見)>에서 재차 제시되었다(朱列 2020; 蔣銳·易思銘 2025). 搜狐網, <https://news.sohu.com/20160704/n457659176.shtml>. (2025년 11월 23일 검색)

17) 新華網, [https://www.xinhuanet.com/politics/2017-01/06/c\\_129434180.htm](https://www.xinhuanet.com/politics/2017-01/06/c_129434180.htm). (2026년 1월 20일 검색)

양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聶長久 2023; 蘇海新 2025).<sup>18)</sup>

그에 따라,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일련의 방침과 제도들이 정비되었다. 첫째,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의 방침으로 ‘조직화’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중앙통전회의(中央統戰會議)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은 ‘신경제조직과 신사회조직의 지식인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들은 개혁개방 이후 신속하게 성장한 사회집단이다. 현재 이들은 주로 당 외부(黨外), 체제 외부(體制外)에 존재하며, 유동성이 높고 사상적으로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일반화된 방식으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업무 수행에 대해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조직화(組織起來)라는 훌륭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형세 하에서 조직화는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企事業單位), 인민단체 등 뿐만 아니라, 각종 유형의 신사회조직과 신경제조직에서도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郭紅霞 2020;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7). 이처럼, 국가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요구 속에서 ‘조직화’는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신사회계층에 대한 업무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謝碧霞·謝素軍 2019; 任稟洁 外 2020).

둘째, 신사회계층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부처가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7월 중앙 통전부는 8국(八局)이라고도 불리는 ‘신사회계층공작국(新的社會階層人士工作局, 이하 신사회계층국)’을 공식적으로 설립하였다(尙媛媛 2016). 신사회계층국의 취지는 정치적 인도를 통해 신사회계층으로 명명된 집단들을 당과 정부의 주변에 결집시키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 건설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李彦博 2018; 李芳韻·丁宇 2021).<sup>19)</sup> 이를 위해, 신사회계층국은 신사회계층의 대표 인사들과의 연락 및 육성과 이들의 사상 상태에 대한 파악과 이들의 의견 수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조사 및 연구의 시행과 정책적 의견 제시, 유관 기관들에 대한 통합적인 조율과 유관 인민단체(人民團體), 통전단체(統戰團體), 사회조직(社會組織) 등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연락과 지도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18) 人民論壇, <https://www.rmlt.com.cn/2022/0726/652567.shtml>. (2026년 1월 20일 검색)

19) 人民網, <http://politics.people.com.cn/n1/2016/0705/c1001-28524022.html>. (2025년 11월 23일 검색)

목적은 지닌 것으로 보도되었다.<sup>20)</sup> 신사회계층국의 설립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전 업무의 강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전 업무가 시진핑 시기 통일전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내포하는 것이었다(周爭艷·王玉華 2018; 海群 2022; 左玲·何虹 2023).

셋째, 2017년 2월에는 공산당 최초로 전국 신사회계층 통전공작회의(全國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會議)가 개최되어 신사회계층의 통전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다(俞娟 2021; 趙瑞祥 外 2022; 蘇文婷 2024). 해당 회의에 참석한 당시 전국정협주석(全國政協主席) 위정성(俞正聲)은 신사회계층에 대한 단결과 인도의 강화, 정치적 공감대의 형성,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자신감, 이론적 자신감, 제도적 자신감,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는 것은 신형세하 당의 국가 통치와 국정운영에 반드시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현실과제임을 지적하는 한편(李淑萍 2017; 薛可 外 2019), 신사회계층 통일전선 업무가 모든 당의 업무(全黨的工作)임을 강조하였다(朱小宝 2018).

더 나아가, 위정성은 각급 당조직의 ‘충분한 존중(充分尊重), 광범위한 연계(廣泛聯系), 단결의 강화(加強團結), 열정적인 도움(熱情幫助), 적극적인 인도(積極引導)’ 방침의 고수를 요구하는 동시에(李云龍 2019), 당의 영도 견지와 당 기층 조직에 대한 의지, 단결과 인도 및 연의교류(聯誼交友) 등의 방식을 통해 신사회계층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지지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sup>21)</sup> 이처럼 2017년 2월의 신사회계층 통전공작회의는 신사회계층 통일전선 업무의 방침, 원칙, 목표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 이정표적 의의(里程碑意義)를 지닌 회의로 평가되었다(中國統一戰線理論研究會統戰基礎理論上海研究基地·中國特色社會主義統一戰線理論研究基地 2019).<sup>22)</sup>

20) 聯合早報, <https://www.zaobao.com.sg/special/report/politic/cnpol/story20160705-637001>. (2026년 1월 22일 검색)

21) 新華網,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7-02/24/c\\_1120526889.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7-02/24/c_1120526889.htm). (2025년 11월 29일 검색).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https://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2025년 11월 29일 검색). 그 외에도 위정성은 혁신 업무 방식의 견지, 사회화의 방향 파악, 네트워크의 중요한 방식 장악, 토론과 교류, 감정증진의 방법의 운용을 통한 신사회계층의 효과적인 조직화를 강조하여 조직화가 신사회계층 통전업무의 중요 방식임을 재차 강조하였다(喻迎春 2019).

22) 央廣網, [https://news.cnr.cn/native/gd/20190919/t20190919\\_524783560.shtml](https://news.cnr.cn/native/gd/20190919/t20190919_524783560.shtml). (2025년 11월 29일 검색)

2017년 2월 개최된 전국 신사회계층 통전공작회의를 통해 신사회계층 통전 업무의 기본 방침이 확립된 이후(何虎生 外 2024),<sup>23)</sup> 전국 각급 통전부서는 신사회계층 조직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사회계층 연의조직(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組織)을 중국 전역에 수립하기 시작하였다(張海東·丁惠平等 2023; 徐軍 2023b).<sup>24)</sup>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은 당위원회 영도 하에, 통전부처의 총괄적인 지도를 받는, 신사회계층인사를 주체로 하는 통전성, 사회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단체로, 당위원회 및 정부와 신사회계층인사들과 연결되는 교량과 연결고리이자, 신사회계층 통전 업무 전개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이해되었다(吉秀華 2020).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은 관할 지역 내 각계 신사회계층에 대한 단결과 인도, 학습교육, 인재양성, 정책 제안, 사회 봉사, 교류와 친목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광범위한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결집과 지역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공헌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당의 통일전선 업무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영도 아래 각종 활동을 전개 한다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趙國梁 2024).

시진핑 시기 당국의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에 대한 강조에 따라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전면적인 구축이 진행되었다.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은 대부분 행정 구역 또는 소속 업종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中國統一戰線理論研究會統戰基礎理論上海研究基地·中國特色社會主義統一戰線理論研究基地 2019), ‘1+N’의 조직 체계를 채택하여, 다양한 사회계층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분회(分會)를 단계별·계층별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었다(張衛 2022). 동시에, 각종 유형의 산업단지(園區), 오피스 빌딩(樓宇), 상업지구

23) 그 외에도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신사회계층에 대한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이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함을 역설하는 등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의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胡芬芳 2018; 李冬梅·韓帥 2023).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https://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 (2025년 11월 29일 검색).

24) 각 지역의 신사회계층 연의조직(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組織)의 명칭은 통일되지 않고 신사회계층 연의회(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會), 신사회계층 연합회(新的社會階層人士聯合會), 신사회계층 전문인사 연합회(新的社會階層專業人士聯合會)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그 중 신사회계층 연의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姚炸琳 2023). 따라서 본문에서는 신사회계층 연의회 등에 관련된 내용 또한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내용을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으로 통칭하여 검토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商務區) 등을 중심으로 사구 기반의 연의조직 구축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조직 구성원들 간의 교류는 주로 일상적인 친목 활동, 명절 행사, 자선 활동, 단체 관광, 교육·훈련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中國統一戰線理論研究會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理論江蘇研究基地 2022).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은 신사회계층 조직화 수준 제고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는데(陳佩 2023), 이는 신사회계층의 소속감을 강화시켜 통전업무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상정치영도, 단결 결집 강화, 연의 교류 전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었다(吉秀華 2020; 中國統一戰線理論研究會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理論江蘇研究基地 2022).<sup>25)</sup>

둘째, 2017년 2월 개최된 전국 신사회계층 통전 공작회의는 베이징, 상하이 등 15개의 시범도시(試點城市)를 선정하여 신사회계층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實踐創新基地)로 확정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이 참고하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周建勇 2021; 李騰 2022).<sup>26)</sup> 이러한 중앙의 관련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신사회계층 통전 업무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졌는데(中國統一戰線理論研究會統戰基礎理論上海研究基地·中國特色社會主義統一戰線理論研究基地 2019), 특히 산업단지(產業園區), 특색소진(特色小鎮), 홍색사구

25)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은 신속하게 전국 각지에 수립되었는데, 2024년 상·시·현 3개 급 연의조직은 약 3,000여 개에 달하며, 약 30만 명의 회원이 해당 조직들에 가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騰訊網, <https://news.qq.com/rain/a/20241224A025HX00>. (2025년 11월 29일 검색)

26) 최초 15개 시범 도시에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다롄(大連),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칭다오(靑島),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청두(成都), 시안(西安), 푸저우(福州), 정저우(鄭州) 등이 선정되었다(黃天柱 2018). 더 나아가, 2018년 12월에는 34개 도시를 신사회계층 통전 업무 혁신 확장 도시(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創新推廣城市)로 추가 선정하여 중국 전역의 성도 도시(省會城市) 및 부성급 도시(副省級城市)와 일부 신사회계층 통전 자원이 비교적 풍족한 지역에서의 신사회계층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의 건설이 전개되었다(崔珏 外 2020; 龔晨 2021a; 高靜·張悅 2022).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전역에서는 중앙 통전부처가 승인한 국가급 시범 프로젝트가 약 300여 개, 각 도시 스스로 명명한 프로젝트가 수천개에 달할 정도로 신사회계층 통전업무를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 건설이 추진되었다(武漢市社會主義學院課題組 2020b; 徐軍 2020c). 澎湃新聞,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91802](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91802). (2025년 12월 11일 검색); 中國日報網, <https://china.chinadaily.com.cn/a/201901/11/WS5c38242ca31010568bdc2e24.html>. (2025년 12월 11일 검색)

(紅色社區), 플랫폼 기업 및 허브형 사회조직(樞紐型社會組織) 등 신사회계층이 밀집되거나, 혁신적인 창업 관련 업종이 밀집된 지역, 당조직 건설의 기반과 통전 업무 수행의 기반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사회계층을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武漢市社會主義學院課題組 2020c; 徐軍 2021; 杭州市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課題組 2018).

신사회계층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 건설은 시구(市區) 통전 부서의 총체적 지휘, 기층 당조직의 시범지역 선정 및 일상 지도 활동 등의 주요 역할 수행, 신사회계층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기업 및 사회조직의 장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의 협조 역할 수행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고(徐軍 2020a; 徐軍 2020b),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를 통해 신사회계층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 공익활동 수행, 신사회계층의 소양개발과 사업 발전 지원, 문화활동의 조직, 인적교류의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武漢市社會主義學院課題組 2020a; 楊衛敏 2020).<sup>27)</sup>

## 2. 신사회계층에 대한 네트워크화, 사회화 업무 방식의 전개

한편으로,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의 중요성은 최근까지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2년 중앙통전 공작회의(中央統戰工作會議)는 ‘당외 지식인과 신사회계층의 통일전선 업무를 반드시 잘 수행해야 한다’는 점의 언급과 동시에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화(組織起來), 인도 강화(加強引導), 역할 발휘(發揮作用)의 방침을 재차 강조하였으며(常慶林 2023; 張麗娜 2024; 李際衛 2024),<sup>28)</sup>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는 신사회계층에 대한 ‘공통 분투의 정치적 인도 강화’를 명시하는 한편(范婷婷 2023; 李雯外 2024), 2024년 7월 20기3중전회(二十屆三中全會)를 통해서도 ‘당외 지식분자와 신사회계층에 대한 정치적 인도 기제의 완비’가 천명되어 신사회계

27) 이러한 신사회계층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는 신사회계층의 영도 및 결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李騰 2025; 徐軍 2023a), 2025년 11월 기준 9,000여 개가 중국 전역에 설립되는 등 빠르게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澎湃新聞, [https://m.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1985317](https://m.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1985317). (2025년 12월 11일 검색)

28) 中國政府網, [https://www.gov.cn/xinwen/2022-07/30/content\\_5703635.htm](https://www.gov.cn/xinwen/2022-07/30/content_5703635.htm). (2025년 11월 29일 검색)

층 인사에 대한 당국의 통일전선적인 측면에서의 영도가 추후에도 지속성을 지닐 것임을 내포하였던 것이다.(謝明翰 外 2025; 方焯 2025).<sup>29)</sup> 더 나아가 2025년 2월 최초로 전국 신사회계층 주제 좌담회가 개최되어 신사회계층의 ‘건설자’의 역할과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위한 더 많은 ‘건설력(建設力)’의 공헌을 강조하였다.<sup>30)</sup> 卞子鵬·杜曉童(2026)에 따르면, 이러한 건설력이라는 용어의 강조는 신사회계층 관련 통일전선 업무의 담론적 맥락이 기존의 신분적 규정에서 역량의 동원으로 전환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차 당대회 및 COVID-19 등의 시기를 전후하여 혁신적인 네트워크화 및 사회화 업무 방식의 전개가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신사회계층봉사단(新的社會階層人士服務團)의 활동이 가시성을 지니게 되었다(陳喜慶 2021). 신사회계층봉사단은 중앙통전부와 신사회계층을 직접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자, 신사회계층을 단결 결집시키는 플랫폼으로 신사회계층의 대표인사를 배양하고, 이들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정의되었으며, 신사회계층인사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31)</sup>

첫째, 신사회계층봉사단은 다양한 학습교육 활동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관점에서 정치사상적 영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사회계층봉사단은 20차 당대회의 개최 이후 ‘마음의 결집과 정신 구조를 통한 기반의 강

29)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https://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2025년 11월 29일 검색); 中國政府网, [https://www.gov.cn/zhengce/202407/content\\_6963770.htm](https://www.gov.cn/zhengce/202407/content_6963770.htm). (2025년 11월 29일 검색)

30) 新浪財經, <https://finance.sina.com.cn/roll/2025-12-09/doc-inhafmiz0660806.shtml> (2026년 2월 28일 검색)

31) 中공중앙 통전부는 2018년 12월 신사회계층봉사단 공작회의(新的社會階層人士服務團工作會議)를 개최하여 중앙통전부와 직접 연계된 신사회계층인사들로 구성된 신사회계층봉사단의 설립을 공식 선언하였다. 신사회계층봉사단은 학습교육(學習教育), 정책건의(建言獻策), 사회봉사(社會服務), 선전 활동(宣傳引導), 연의교류(聯誼交友)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2024년 1월 현재 37개의 분단(分團)과 약 2,000명의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新浪新聞, <https://news.sina.cn/2018-12-26/detail-ihqhqcis0559655.d.html>. (2025년 12월 11일 검색); 澎湃新聞,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777781](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777781). (2026년 1월 23일 검색); 統戰新語, <https://mp.weixin.qq.com/s/DU72vVoFfL9v-KJPcNMC9A>. (2026년 1월 23일 검색); 中共貴州省委統戰部, [https://www.gzswtzb.org.cn/gztzyzlxhyxw/202401/t20240111\\_83528312.html](https://www.gzswtzb.org.cn/gztzyzlxhyxw/202401/t20240111_83528312.html). (2025년 12월 11일 검색)

화 및 신여정을 위한 단결과 분투(凝心鑄魂強根基、團結奮進新征程)’라는 주제로 세미나, 포럼 등의 활동을 통해 당의 영도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감정적 공감대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20차 당대회 정신 학습 주제 세미나의 개최뿐만 아니라, 봉사단 각 분단 차원에서의 전자 주간지 <학습문선(學習文選)>의 발간 등의 사상교육 활동과 신사군 황차오 전역 기념관(新四軍黃橋戰役紀念館), 뤼순 러일 감옥 유적 박물관(旅順日俄監獄旧址博物館), 안후이 두장 전역기념관(安徽渡江戰役紀念館) 등의 애국주의 교육기지의 방문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색교육과 혁명전통에 대한 교육으로 발현되었다.<sup>32)</sup>

둘째, 신사회계층봉사단은 중국 각 지역에 대한 시찰과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신사회계층봉사단은 칭하이(靑海) 지역을 방문, 칭짱고원(靑藏高原) 생태보호와 소수 민족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칭하이성관계자들로부터 비준(批示)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하의 봉사단 분단들 역시 후베이(湖北)와 선전(深圳) 등의 지역 방문과 문화·관광 산업 발전, 지역 융합 발전, 도시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한 세미나와 정책 제언의 전개, 상하이(上海)·다롄(大連)·광저우(廣州) 등 지역의 시찰과 발전 포럼을 통한 디지털 경제, 도시 고품질발전 등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논의의 전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sup>33)</sup>

셋째, 신사회계층봉사단은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COVID-19의 발발 이후 신사회계층봉사단은 ‘전국 신사회계층방역정보연계 플랫폼(全國新的社會階層人士抗擊疫情信息對接平台)’을 구축하는 한편, 우한 방역지원소조(援助武漢疫情小組) 설립을 통한 10만 개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또한, 봉사단의 온라인인사 3개 분단은 COVID-19 대응을 위한 ‘과학방역’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1억 명 네티즌과의 공유 및 111개 도시에서의 오프라인 배포를 진행하는 한편, 의료진을 응원하는 공익 가곡을 제작하여 조회수 5,000만 회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34)</sup> 그 외에도, 신사회계층봉사

32) 中共天津市委統戰部, <https://www.tjzb.org.cn/system/2024/02/02/030038531.shtml>. (2025년 12월 11일 검색)

33) 中共天津市委統戰部, <https://www.tjzb.org.cn/system/2024/02/02/030038531.shtml>. (2025년 12월 11일 검색)

34) 그 외에도 신사회계층봉사단 구성원들의 개인 차원에서의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물자와 현금의 기부 수행과 소속 단위, 업계 및 전문영역 종사자들에게로의 호소를 통해

단은 구이저우(貴州)와 칭하이 등을 방문하여 구호 활동과 물자 지원을 수행하는 한편, 전국 각지의 신사회계층 연의조직과 협력하여 신사회계층의 동원과 조직을 통해 <신계층·심향당(新階層·心向党)> 활동을 전개, 장시 광창(廣昌) 지역의 향촌진흥을 지원하는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였다.<sup>35)</sup>

넷째, 신사회계층봉사단은 다양한 선전활동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2021년 신사회계층봉사단 온라인 인사 분단(網絡人士分團)은 당 창립 100주년의 기념을 위해 <순미·중국(尋美·中國)>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영상전시, 주제 공모전, 문예창작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도시건설, 혁명전통, 자연경관, 탈빈곤 성과, 전통문화발전 등 공산당 영도 하 중국의 발전과 성과에 대한 체험을 통해 통일전선 구성원과 사회 대중의 애당(愛黨), 애국(愛國)의 여론을 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sup>36)</sup> <순미·중국> 활동은 중국 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게 되었으며, 2024년 4월까지 조회수는 480억 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자는 누계 10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sup>37)</sup> 또한, 신사회계층봉사단은 중국재해방어협회(中國災害防禦協會), 중국의학구조협회(中國醫學救援協會) 등과 연합하여 청소년 대상의 위험방지 능력 및 응급처치 능력에 대한 학습활동인 <소년 긴급 구호관(少年急救官)> 활동을 전개하였다.<sup>38)</sup>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경외의 의식,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양하는 목적을 강조하는 <소년 긴급 구호관>은 2024년 4월까지 중국 전역 1,400여 개의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참여 속에서 10만 개의 학교와 8,0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공익 활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sup>39)</sup>

수백억 위안 규모의 기부를 이끌어내는 등의 방역퇴치 지원을 수행하였다. 搜狐网, [https://www.sohu.com/a/444713397\\_120207344](https://www.sohu.com/a/444713397_120207344). (2025년 12월 31일 검색).

35) 中共天津市委統戰部, <https://www.tjzb.org.cn/system/2024/02/02/030038531.shtml>. (2025년 12월 11일 검색)

36) 中共貴州省委統戰部, [https://www.gzswtzb.org.cn/gztyzxlxhyxw/202201/t20220114\\_72320288.html](https://www.gzswtzb.org.cn/gztyzxlxhyxw/202201/t20220114_72320288.html) (2025년 12월 31일 검색)

37) 中共天津市委統戰部, <https://www.tjzb.org.cn/system/2024/05/16/030040838.shtml>. (2025년 12월 11일 검색)

38) 首都統一戰線, <https://www.bjzb.gov.cn/wwwroot/sdtyzx/publish/article/219/26656.shtml>. (2025년 12월 31일 검색)

39) 人民網, <http://sc.people.com.cn/n2/2024/0622/c345167-40887905.html>. (2025년 12월 11일 검색)

끝으로, 신사회계층봉사단은 신사회계층인사의 연의 교류를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대표인사분단(自由職業代表人士分團)은 2022년 20차 당대회 개최의 환영을 주제로 ‘예심향당(藝心向党)’ 주제의 사진전과 예술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주제 사진전은 당의 18차 당대회 이후 당 영도하의 경제사회발전의 역사적 성과를 렌즈와 사진에 반영하여 신사회계층의 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전국 각지 신사회계층의 적극적 호응과 참여 속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전문가들의 심사로 엄선된 1,000여 개의 작품 중 200개의 작품이 전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한편으로 주제 예술전시회는 예술 형식으로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과 중국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리랜서 예술가들의 당과의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행동을 통해 20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맞이하고자 하였다. 해당 예술전시회는 전국 프리랜서 예술가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었고, 전국 각지 프리랜서 예술가 1,800명이 출품한 1,807개의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엄선된 200여 개의 전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sup>40)</sup>

이처럼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 분류의 재정립과 이들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당국 입장에서 다양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가의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적인 영향력의 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련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중국 전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시·현(구)에서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전면적인 구축이 진행되었는데(李楠 2023; 張偉偉·陳夢璐 2025),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이 보유한 정치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들 조직들은 당과 정부가 원하는 바를 신사회계층 내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吉秀華 2020). 한편으로, 중앙 통전부의 강력한 요구 속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모델의 추구하고 플랫폼의 구축의 모색을 중시하는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 역시 전국 각지에 빠르게 형성되었는데,<sup>41)</sup> 이러한 신사회계층 연의조직 및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 건설의 확대는 향후 신사회계층의 조직화된 통일전선 업무의 효과적 전개를

40) 首都統一戰線, <https://www.bjtz.gov.cn/wwwroot/sdtyzx/publish/article/219/26656.shtml>. (2025년 12월 31일 검색)

41) 人民論壇, <https://www.rmlt.com.cn/2022/0726/652567.shtml>. (2026년 1월 20일 검색)

위한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李楠 2023).

둘째,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의 조직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수립된 일련의 조직들은 신사회계층의 영향력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신사회계층과의 상호작용 확대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은 신사회계층의 공익사업 전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지역사회의 안정 유지, 당국에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중요한 무대를 제공하는데(郭曉東 2024), 이는 신사회계층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정부의 공공 서비스 공백의 보완과 사회 거버넌스의 참여를 의미하는 한편(李雯 外 2023; 王夏興 2024), 해당 분야에서 신사회계층의 영향력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范玉聰·陳曉紅 2025). 이에 반해, 당국의 입장에서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화는 신사회계층을 경제사회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中國統一戰線理論研究會統戰基礎理論上海研究基地·中國特色社會主義統一戰線理論研究基地 2019), 신사회계층이 전개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당국이 제시한 조직화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당 지배체제의 정당성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사회계층에 대한 당국의 조직화의 노력은 향후 신사회계층을 통한 정당성의 강화에도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시진핑 시기 조직화의 방침은 신사회계층의 광범위한 결집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상하이 하이엔 블로그(海燕博客)의 활동 사례는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다(肖存良 2018; 中共黃浦區委統戰部·復旦大學統戰理論研究基地 2018). 하이엔 블로그는 대표성을 지닌 인물을 포섭하는 대신 평범한 배경의 인물을 발굴하고 이들의 공익활동과 여가시간에서의 소모임 활동(社團活動)을 격려하여 다수의 지지자를 확보, 신사회계층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신사회계층이 공감하기 어려운 정통적인 통일전선 맥락의 정치활동 대신 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오락과 연극 등의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 정치를 받아들이는 ‘은유적 정치화(隱政治化)’를 추진하였다.<sup>42)</sup> 그 외에도 하이엔 블로그는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에서

42) 예를 들어, 하이엔 블로그 산하의 최초 소모임 단체인 도시원점(都市原点)은 최초에는 핑크레이디(粉紅女郎)라는 희극을 연출하였지만, 점차 정치적 요소와 통일전선적 요소를 극중에 삽입하여 연극의 형태로 통일전선을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文匯網, <https://www.wenhuiweb.com>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중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자아발전을 통한 성장을 격려하는 한편, 독서모임, 극단활동, 토크쇼, 공익활동 등 일련의 여가 활동모임을 구축하여 신사회계층의 생활 속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충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통일전선 업무의 전개를 추구하였다(肖存良 2018). 일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이엔 블로그는 20여개의 소모임 단체와 5만 명의 활동 회원을 보유한 상당한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sup>43)</sup> 이러한 하이엔 블로그의 사례는 신사회계층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락 여가생활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익사업의 발전 및 사회 거버넌스 축진의 새로운 역량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張海東·丁惠平等 2023).

다만, 이러한 활동들 역시 여러 가지 고민과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먼저 신사회계층의 특징에 따른 조직화의 한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신사회계층은 상이한 배경을 가진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기술관리직, 중개조직과 사회조직, 프리랜서, 뉴미디어 종사자 등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용자와 자유직업자, 사영분야 및 사회적 영역 등을 포괄하는 등 구성적 측면에서 복잡한 형태를 지닌다(冉德睿 2023). 또한 이들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과 이직률을 보이며 광범위한 업종과 다양한 지역 등에 분포해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조직화는 당국의 고민이 더욱 필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潘清 2022; 王伯睿 外 2024).

둘째,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활동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활동은 연의교류, 사회봉사, 정치학습, 선전활동 등 활동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부족한 편이며, 그에 따라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에 대한 신사회계층의 저조한 관심과 낮은 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張彩云 2020; 劉啓營 2020). 특히 신사회계층은 내부적으로 사상적인 다원성과 가치관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海群 2022; 余偉 外 2024),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기반으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 따라 신사회계층은 조직 활동에 대한 동질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제약을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wenhui.whb.cn/third/yidian/201909/02/287010.html. (2026년 1월 20일 검색)

43) 中國新聞網, <https://www.sh.chinanews.com.cn/bdtd/2025-12-12/143264.shtml>. (2026년 1월 20일 검색)

사상적 통일에 기반을 둔 조직화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張璐 2020; 潘清 2022).

끝으로, 당국이 추구하는 신사회계층 조직화에 대한 신사회계층의 전반적인 저조한 참여가 향후 당국의 고민거리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기준 신사회계층은 모두 9,100만 명에 달하였으나,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에서 활동하는 신사회계층은 2024년 기준 30만 명에 불과하며, 신사회계층 봉사단의 구성원 역시 2,000명으로 전체 대비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현 시점에서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화가 전면적이라기보다는 소수에 국한된 활동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신사회계층은 당국의 조직화 방침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임을 내포한다. 이처럼, 신사회계층 집단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하고 정교한 조직화의 모색과 더 많은 신사회계층의 당국의 조직화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 등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郝麗 2021; 龔晨 2021b; 李冬梅·韓帥 2023).

요컨대, 시진핑 시기 산업구조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 등의 변화 속에서 신사회계층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였고, 신사회계층에 대한 당국의 개념적 분류 또한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관리기술직 종사자, 중개조직과 사회조직의 종사자, 프리랜서, 뉴미디어 종사자 등으로 변화하였다. 한편으로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화의 강조, 신사회계층국의 설립, 전국 신사회계층 통전공작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전업무는 더욱 구체화되었고, 이는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수립, 신사회계층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의 건설, 신사회계층 봉사단의 수립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당국의 관점에서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적 영향력 강화, 신사회계층과의 접촉과 상호작용 확대, 신사회계층의 광범위한 결집의 가능성 제시 등의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신사회계층의 특징에 따른 조직화의 한계, 신사회계층 연의조직 활동의 한계, 신사회계층 조직화에 대한 신사회계층의 전반적인 참여 저조 등의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 IV. 결론

개혁개방이 가져온 사회구조 변화와 비공유제 분야의 형성과 발전 등의 일련의 변화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신사회계층의 형성과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을 거듭한 신사회계층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로 명명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를 점차 구체화하였다. 더 나아가, 시진핑 시기 중국 공산당은 신사회계층에 대한 개념적 분류에 대한 재조정과 함께 신사회계층의 조직화에 대한 강조, 신사회계층국의 설립, 전국 신사회계층 통전공작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업무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 속에서,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수립, 신사회계층 통전업무 실천 혁신기지의 건설, 신사회계층 봉사단의 설립 등의 일련의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당국의 입장에서 신사회계층에 대한 조직적 영향력 강화, 신사회계층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의 확대, 신사회계층의 광범위한 결집 가능성 모색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신사회계층의 복잡성, 유동성과 광범위한 분포 등의 특징에서 파생되는 조직화의 문제, 신사회계층 연의조직의 활동이 가지는 한계, 조직화에 대한 신사회계층의 낮은 참여 수준의 문제 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진핑 시기 신사회계층에 대한 통일전선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신사회계층에 대한 전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신사회계층이 가진 다원적이고 유동적인 특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조직화가 가지는 한계 또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공산당 영도 하의 하향식 통일전선 전략이 가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로 고착화될 것인지, 혹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성민 (2016). “중국의 사회단체 정책: 통일전선진술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 제 23권. 제4호, pp. 155-186.
- 마민호 (2014). “통일전선진술의 관점에서 중국의 종교통제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 제15권. 제1호, pp. 359-389.
- 배정호 (2020). “중국대륙을 장악한 공산당의 통일전선에 대한 재인식.” 『전략연구』 . 제82호, pp. 51-85.
- 이병주·김기훈 (2002). “국권장악 책략으로서의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정책 연구 (1937-1949).” 『전략연구』 . 제25호, pp. 130-189.
- 이지용 (2021).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전략과 실제: 해외통전 전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 . 제15호, pp. 177-216.
- 최승현 (2016).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과 화교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항일민족전선과 인민민주통일전선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 제63집, pp. 395-415.
- 표나리 (2023). 『중국공산당 해외통일전선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Almen, O. and H. Carlsson (2025).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fluence over businesses*. <https://kinacentrum.se/en/publications/the-chinese-communist-party-s-influence-over-businesses/>. (2026년 2월 6일 검색)
- Beaumelle, M. A. d. I. (2017). “The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Magic Weapon” at Home and Abroad.” *China Brief* Vol. 17. No. 9, pp. 19-24.
- Brady, A.-M. (2018). “New Zealand and the CCP’s Magic Weapons.” *Journal of Democracy*, Vol. 29. No 2, pp. 68-75.
- De Giorgi, L. (2019). “United Front.” Christian Sorace, Ivan Franceschini and Nicholas Loubere (eds.). *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 Political Concepts from Mao to Xi*. Canberra: ANU Press, pp. 303-308.
- Dotson, J. (2020). “The CCP’s New Directives for United Front Work in Private Enterprises.” *China Brief* Vol. 20. No. 17, pp. 1-6.
- Eto, N. (2022).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desire for legitimacy: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its “new political system.””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Vol. 11. No. 2, pp. 214-228.
- Garnaut, R., L. Song and Y. Yao (2006). “Impact and Significance of State-Owned Enterprise Restructuring in China.” *The China Journal*. Vol.

55, pp. 35 - 63.

- Gill, B., and B. Schreer (2018). "Countering China's "United Front"."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1. No. 2, pp. 155-170.
- Groot, G. (2015). "The United Front in an Age of Shared Destiny." Geremie R. Barme, Lina Jaivin, and Jeremy Goldkorn (eds.). *The Shared Destiny*. Canberra: ANU Press, pp. 129-135.
- Groot, G. (2016). "The expansion of the United Front under Xi Jinping." Gloria Davies, Jeremy Goldkorn, Luigi Tomba (eds.). *China Story Yearbook 2015: Pollution*. Canberra: ANU Press, pp. 168-177.
- Groot, G. (2017). "United Front Work after the 19th Party Congress." *China Brief* Vol. 17. No. 17, pp. 3-7.
- Groot, G. (2018). "The Rise and Rise of the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under Xi." *China Brief* Vol. 18. No. 7, pp. 14-16.
- Groot, G. (2019). "The CCP's Grand United Front abroad." <https://sinopsis.cz/wp-content/uploads/2019/09/grootuf.pdf>. (2026년 2월 6일 검색)
- Groot, G. (2022). "The Life and Death of United Front Promises From Revolution to (Re)-Unifi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China Brief* Vol. 22. No. 19, pp. 17-23.
- Hsiao, R. (2021). "Political Warfare Alert: CCP Updates United Front Regulations Expanding Foreign Influence Mission." *Global Taiwan Brief* Vol. 6. No. 3, pp. 1-3.
- Joske, A. (2019). "Reorganizing the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New Structures for a New Era of Diaspora and Religious Affairs Work." *China Brief* Vol. 19. No. 9, pp. 6-13.
- Joske, A. (2020). "The party speaks for you: Foreign interference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united front system." *Policy Brief Report*. No. 32, pp. 1-50.
- Jourda, E. (2024). "The United Front: The Magic Weap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Metamorphoses." Jerom Doyon and Chloe Froissart (ed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 100-Year Trajectory*. Canberra: ANU Press, pp. 155-179.
- Liao, X., and W.-H. Tsai (2019). "Clientelistic State Corporatism: The United Front Model of "Pairing-Up" in the Xi Jinping Era." *The China Review* Vol. 19. No. 1, pp. 31-56.

- Suzuki, T. (2019). "China's United Front Work in the Xi Jinping era: institutional developments and activities."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Vol. 8. No. 1, pp. 83-98.
- Wang, R., and G. Groot (2019). "Who Represents? Xi Jinping's Grand Unite Front Work, Legitimation, Participation and Consultative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7. No. 112, pp. 569-583.
- Wu, X., and Y. Xie (2003). "Does the Market Pay off? Earnings Returns to Education in Urba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8. No. 3, pp. 425-442.
- Zhao, T., and J. Leibold (2020). "Ethnic Governance under Xi Jinping: The Centrality of the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 Its Implic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9. No. 124, pp. 487-502.
- 姜力 (2007). "新的社會階層成長歷程述評." 『吉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11-14.
- 姜力 (2010). "新世紀10年新的社會階層人士理論及實踐的新發展." 『吉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28-33.
- 高靜·張悅 (2022).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標準化建設研究."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67-71.
- 龔晨 (2021a). "新的社會階層人士有效組織起來的實踐探索與制度設計——以廣西為例." 『河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91-96.
- 龔晨 (2021b). "新的社會階層人士有效組織起來的價值、困境與機制創新." 『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45-49.
- 郭曉東 (2024). "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組織建設現狀及對策研究——基於江蘇省85個聯誼組織的調查分析." 『山東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57-65.
- 郭紅霞 (2020). "治理創新與新的社會階層組織化建設."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163-173.
- 郭紅霞·王珊 (2024). "新的社會階層人士助力共同富裕的實踐路徑與政策建議."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136-147.
- 權宗田·李明龍 (2025). "新的社會階層人士助力新質生產力發展的內在邏輯與實踐進路." 『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6期, pp. 46-53.
- 吉秀華 (2020). "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組織建設與發展問題研究——基於政治性——社會性的二維分析."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182-194.
- 寧可 (2014). "歷次全國統戰工作會議的理論與政策創新成果." 『中國統一戰線』. 第8期, pp. 4-13.

- 雷明貴 (2018). ““新的社會階層”概念辨析——一个知識社會學的考察.”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53-57.
- 董曉婧·朱婷 (2007). “新社會階層——新時期統戰工作的新着力點.” 『法制與社會』. 第8期, pp. 475-476.
- 廉思·馮丹·芦壺 (2016). “当前我國新社會階層的特征分析、杠杆作用以及工作思考——關於新社會階層的調研報告.” 『中國青年研究』. 第11期, pp. 56-63.
- 廉思·芦壺·馮丹 (2017). “新社會階層面臨的挑戰、發展的趨勢以及對策思考.” 『青年學報』. 第1期, pp. 45-51.
- 路璐·李小宇 (2018). “改革開放與非公有制經濟人士和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158-164.
- 劉國皇 (2008). “构建和諧社會視域下的社會新階層統戰工作.” 『社科縱橫』. 第1期, p. 46-48.
- 劉啓營 (2020). “新的社會階層統戰工作困境及社會化工作机制构建.” 『天津市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22-25.
- 劉騰飛 (2019). “分化·挑戰·整合——“新的社會階層人士”在株洲.” 『貴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17-21.
- 劉少杰·周驥騰 (2022). “不確定條件下新社會階層的社會地位、身份認同與網絡心態” 『江海學刊』. 第1期, pp. 116-124.
- 劉樹燕 (2025). “政治社會學視域下新的社會階層人士參與中國式現代化研究.”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107-117.
- 陸學東 (2011). “創新工作机制 不斷加強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 『黑龍江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23-25.
- 陸學藝 (2010). “中國社會階級階層結構變遷60年.” 『北京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0卷. 第3期, pp. 1-12.
- 李强 (2017). “社會學視角中的新社會階層.”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51-57.
- 李强·丁輝文·趙羅英 (2017). “怎樣理解和認識当前我國新的社會階層?” 『學習與探索』. 第10期, pp. 28-33;
- 李楠 (2023). “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組織建設調查研究.” 『天津市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29-33.
- 李冬梅·韓帥 (2023). “新時代提升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實效研究.” 『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27-30.
- 李騰 (2022). “基層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化的挑戰與對策——以浙江省為例.”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3卷. 第1期, pp. 68-76.

- 李騰 (2025). “從單一到協同：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平台載體效能提升研究.”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117-126.
- 李路路 (2017a). ““新社會階層”：譜系·變革·挑戰.” 『統一戰線學研究』. 第4期, pp. 5-16.
- 李路路 (2017b). “新的社會階層——意義和挑戰并存.”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58-62.
- 李雯·郭清梅·李彥博 (2023). “新的社會階層人士成長環境與發展趨勢研究.”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99-111.
- 李雯·竇澤浩·祁雅申 (2024). “證券市場中介機構從業人員統戰工作研究.” 『天津市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15-19.
- 李芳韻·丁宇 (2021). “淺析加強黨對新的社會階層的領導.” 『河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71-75.
- 李培林 (2017). “改革開放近40年來我國階級階層結構的變動、問題和對策.” 『中共中央黨校學報』. 第21卷, 第6期, pp. 5-16.
- 李培林 (2021). “加強對新的社會階層的研究.”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5期, pp. 55-61.
- 李小平·路璐 (2018). “新的社會階層：由來·調整·譜系.” 『統一戰線學研究』. 第3期, pp. 68-73.
- 李小平·張繼輝·郭紅霞 (2009). “新的社會階層統戰工作的三重創新.” 『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0卷, 第1期, pp. 22-27.
- 李淑萍 (2017). “做好自由職業人員統戰工作的思考——以寧夏為例.” 『黑龍江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31-34.
- 李彥博 (2018). “準確掌握新的社會階層底數：背景、問題及對策.”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57-61.
- 李云龍 (2019). “城區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方法研究——基於大連市中山區的實踐成果分析.” 『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28-32.
- 李仁質 (2012). “做好新的社會階層人士的統戰工作 為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凝聚新力量.”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5期, pp. 30-35.
- 李際衛 (2024). “關於新的社會階層代表人士綜合評價的若干思考.”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19-24.
- 李春玲 (2017). “新社會階層的規模和構成特征——基於體制內外新中產的比較.”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63-69.
- 李春玲 (2019). “我國階級階層研究70年：反思、突破與創新.” 『江蘇社會科學』. 第6期, pp. 22-30.

- 李洪祥 (2005). “正確認識我國階級狀況新變化和新社會階層.” 『中學政治教學參考』. 第1-2期, pp. 8-10.
- 林延斌 (2020). “改革開放以來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創新研究.” 『中共樂山市委黨校學報(新論)』. 第2期, pp. 97-103.
- 武漢市社會主義學院·漢陽區委統戰部聯合課題組 (2019).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實踐創新基地建設的武漢探索.” 『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49-54.
- 武漢市社會主義學院課題組 (2020a).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示范項目建設的功能研究.” 『廣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31卷 第1期, pp. 30-37.
- 武漢市社會主義學院課題組 (2020b). “新的社會階層統戰工作示范項目建設載體研究.”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68-74.
- 武漢市社會主義學院課題組 (2020c). “新階層統戰工作示范項目建設評價研究.” 『廣東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91-96.
- 潘衛東 (2002). ““建設者”概念的提出及其意義.” 『理論學刊』. 第1期, pp. 64-66.
- 潘清 (2022). “以“兩個確立”引領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化研究.” 『廣東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36-42.
- 方焯 (2025). “新的社會階層青年統戰：群體表征、關鍵維度與路徑探索.” 『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32-42.
- 范玉聰·陳曉紅 (2025). “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組織的運作模式、特征與规范化路徑——以湖南為例.” 『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24-31.
- 范婷婷 (2023). “淄川區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存在的問題及對策建議.” 『新西部』. 第9期, pp. 97-99.
- 費凡 (2019). “市場化·原子化·組織化——新的社會階層的生成渠道、存在狀態和發展趨勢.” 『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0卷 第6期, pp. 61-63.
- 馮波·陳軍 (2022). “新時代黨建引領新社會階層組織化的路徑探索.” 『領導科學論壇』. 第9期, pp. 106-109.
- 謝明翰·李岩·谷嵩瑤 (2025). “新的社會階層人士參與基層社會治理的創新路徑研究.” 『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35-39.
- 謝碧霞·謝素軍 (2019). “現代志願服務組織：新的社會階層的再組織化路徑選擇.” 『四川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29-34.
- 謝偉 (2009). “新階層的發展與統一戰線的構建.” 『世紀橋』. 第15期, pp. 38+40.
- 常慶林 (2021). “新的社會階層的發展演進與主體特質.” 『廣東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73-76.
- 常慶林 (2023). “新的社會階層人士參與社會治理的實踐進路研究.” 『廣東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58-63.

- 尚媛媛 (2016). “論統戰工作視域下新媒体從業人員的思想建設.” 『四川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17-20.
- 徐軍 (2018).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實踐創新基地建設研究.” 『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6期, pp. 33-38.
- 徐軍 (2020a). “新階層統戰工作示范項目建設創新研究.” 『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5期, pp. 41-47.
- 徐軍 (2020b). “黨的群眾工作在新時代的創新研究——基于新的社會階層統戰工作實踐創新基地示范項目的思考.” 『湖北行政學院學報』. 第6期, pp. 86-91.
- 徐軍 (2020c). “新階層統戰工作示范項目建設主体研究.”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42-50.
- 徐軍 (2021). “城市基層治理的統戰樣本——新的社會階層統戰工作實踐創新示范項目.” 『山東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21-29.
- 徐軍 (2023a). ““新的社會階層”名称、內涵、构成的調整研究.” 『党史天地』. 第3卷第2期, pp. 63-76.
- 徐軍 (2023b). “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會建設研究初探——關於新聯會建設若干重大問題的思考与建議.”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60-66.
- 徐石磊 (2025). “理論、歷史与實踐：新的社會階層發展的三重邏輯.” 『內蒙古統戰理論研究』. 第2期, pp. 45-50.
- 薛可·余來輝·王宇澄 (2019). “媒介接触對新社會階層政治態度的影響研究——基于政治社會化的視角.” 『新聞大學』. 第3期, pp. 34-46+117-118.
- 聶長久 (2023). “中國式現代化視域下的階層分化与整合——以新的社會階層為視角.” 『社會主義研究』. 第4期, pp. 18-25.
- 肖存良 (2018).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的模式轉換与發展方向——以上海市黃浦區“海燕博客”為例.” 『統一戰線學研究』. 第4期, pp. 68-75.
- 肖太福 (2008). “建立科學的評價体系 擴大新社會階層的有序政治参与.” 『重慶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37-40.
- 蘇文婷 (2024). “中國式現代化背景下新的社會階層發揮積極作用研究.” 『中共南寧市委党校學報』. 第2期, pp. 6-11.
- 蘇海新 (2025). “新發展階段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化研究.” 『吉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33-40.
- 孫濤 (2019). “新時代新的社會階層人士参与社會治理問題論析.” 『理論導刊』. 第3期, pp. 33-38+44.
- 孫信·趙妍 (2021). “社會階層變化視角下統戰工作的挑戰与對策.”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122-133.

- 宋華忠 (2014). 『新社會階層的興起与中國共產黨領導權實現路徑』.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亞洲開發銀行 (2003). “中國私營企業的發展.”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ect-documents/ta3543-prc-final-report-cn.pdf>. (2026년 1월 12일 검색)
- 楊衛敏 (2020). “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化与新時代統一戰線創新拓展.” 『上海市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8-16.
- 余偉·張山·溫開照 (2024). “新的社會階層人士政治參與問題与對策研究.”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55-61.
- 冉德睿 (2023). “新時代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的思考.” 『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43-47.
- 叶敏 (2017). ““新的社會階層人士”的歷史演繹及特点分析.” 『農家參謀』. 第10期, pp. 280+271.
- 叶子鵬·杜曉童 (2026). “建設力: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標識性概念的邏輯生成与框架建构.” 『統一戰線學研究』. 第1期, pp. 58-72.
- 吳雪燕·盧勇 (2018). “我國新的社會階層政治參與的現狀及對策研究.” 『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9卷, 第5期, pp. 52-55.
- 王繼宣 (2001). “建設者”概念的科學合理性及其意義.”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13期, pp. 38-40.
- 王伯睿·叶閔慎·袁北星 (2024). “把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起來”: 理論、現實与路徑.”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98-112.
- 王夏興 (2024). “新的社會階層人士參與社會治理發揮作用研究——以杭州市為例.” 『河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75-81.
- 王星·魏心怡 (2016). “社會轉型進程中我國新社會階層的形成及其身份認同建构.”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第11期, pp. 153-161.
- 王勇 (2012). “新階層統戰工作机制研究.” 『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51-55.
- 王俊秀 (2018). “新社會階層与社會凝聚力: 社會心態的視角.”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55卷, 第5期, pp. 37-45.
- 王智·方錦波 (2026).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理論体系的基本架构与知識生產.” 『統一戰線學研究』. 第1期, pp. 42-57.
- 王喆 (2020). “黨的領導是新的社會階層組織化的前提.”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63-67.
- 王浩斌 (2010). “中國新社會階層形成及發展的經濟制度基础.” 『广西財經學院學報』. 第23卷, 第1期, pp. 41-44+63.

- 姚焯琳 (2023). “新聯會助推新社會階層的組織化——以沈陽市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會建設為例.” 張海東·王星 主編. 『中國新社會階層發展研究報告No.1』.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217-233.
- 袁博·張海東 (2023). “新社會階層的結構化.” 張海東·王星 主編. 『中國新社會階層發展研究報告No.1』.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23-45.
- 俞娟 (2021). “新時代統戰思想的四維內涵.” 『廣東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40-45.
- 喻迎春 (2019).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社會化路徑探析.”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5期, pp. 55-59.
- 任稟浩·解永強·申永康·黃曉翠 (2020). “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化實現路徑的若干思考.” 『陝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28-32.
- 張麗娜 (2024).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優化路徑探究.” 『中國軍轉民』. 第7期, pp. 140-142.
- 張璿 (2020). “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化研究.” 『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5-13.
- 張莉莉·萬曦 (2010). “試析我國新的社會階層的形成與發展.” 『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44-46.
- 張林·魏常雷 (2012). “新時期社會階層的變化對統一戰線工作的影響.” 『中共太原市委黨校學報』. 第1期, pp. 61-63.
- 張林江 (2017). “新的社會階層興起及其對當代中國的影響.”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70-80.
- 張峰 (2015). “新階層 新常態 新作為——關於新的社會階層的理論和實踐新發展.”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5-8+17.
- 張師平 (2017). “新的社會階層發展的歷史脈絡及規律探析.” 『內蒙古統戰理論研究』. 第5期, pp. 38-42.
- 張若云 (2024). 『中國特色社會主義新的社會階層理論研究 (1978-2017)』.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蔣銳·易思銘 (2025). “新時代統一戰線工作的鮮明特征——以《中國共產黨統一戰線工作條例》為分析視角.” 『理論學刊』. 第3期, pp. 35-42.
- 張衛 (2022). “新的社會階層組織化: 必然、應然與實然.” 『江海學刊』. 第1期, pp. 125-133.
- 張偉偉·陳夢璐 (2025). “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組織规范化建設: 現實意義、體系框架、主要內容與實踐路徑.”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46-53.
- 張彩雲 (2020). “把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起來”的對策研究.” 『中央社會主義學院學

- 報』. 第2期, pp. 154-162.
- 張彩云 (2024). “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体系建构研究.” 『吉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24-31.
- 張波 (2025). “新的社會階層人士助推實現共同富裕的內在机理与推進路徑.” 『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21-27+91.
- 張海東 (2019). “新社會階層的結構化、組織化及發展趨勢.” 『江海學刊』. 第5期, pp. 124-130+254-255.
- 張海東 (2021). “轉型中國的新力量：新社會階層何以推動社會變革創新.” 『社會政策研究』. 第1期, pp. 105-115.
- 張海東·杜平 (2017). “新社會階層的生成机制及其再組織化問題.”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81-85.
- 張海東·杜平 (2018). “從新社會階層的崛起看社會治理創新.”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49-55.
- 張海東 等 (2017). 『中國新社會階層：基于北京、上海和廣州的實証分析』.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張海東·楊城晨 (2018). “新社會階層：理論溯源与中國經驗.”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第11期, pp. 142-152.
- 張海東·楊城晨 (2022). “社會結構嬗變中的新社會階層：生成發展与社會屬性.” 『江海學刊』. 第3期, pp. 105-112.
- 張海東·楊城晨·袁博 (2021). “新時代中國新社會階層的社會心態——基于十個特大城市的數據分析.”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141-153.
- 張海東·袁博 (2023). “新社會階層的職業流動特征与模式.” 張海東·王星 主編. 『中國新社會階層發展研究報告No.1』.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46-62.
- 張海東·丁惠平等 (2023). “新社會階層的組織化与社會治理共同体建設.” 張海東·王星 主編. 『中國新社會階層發展研究報告No.1』.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125-139.
- 丁藝龍·戴彩云 (2023). “基于“組織”的再組織：大變革時代新的社會階層青年統戰工作的組織化研究.” 『青年發展論壇』. 第33卷. 第6期, pp. 15-22.
- 趙國梁 (2024). “新的社會階層人士聯誼會運行机制研究.” 『中共太原市委党校學報』. 第4期, pp. 64-67.
- 趙瑞祥·吳曉兵·張英娥 (2022).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實踐和對策建議——基于荊州市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的調研.” 『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6期, pp. 49-54.
- 趙秀忠·宋書偉 (2007). “正確把握和處理社會階層關係 為构建和諧社會、實現科學發

- 展凝聚新力量.”『河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8-14.
- 曹麗薇·趙明陽 (2006). “把新的社會階層人士工作作為統一戰線工作新的着力點.”『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5期, pp. 8-9.
- 左玲·何虹 (2023). “協同治理視域下陝西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的優化路徑.”『陝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28-33.
- 周建勇 (2021). 『統一戰線的理論與實踐』.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 周述杰 (2006). “關於新的社會階層形成與發展的歷史考察.”『陝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20-24.
- 周述杰 (2018). “習近平關於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的思想探析.”『山東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23-30.
- 周爭艷·王玉華 (2018).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策略研究——以山東省為例.”『山東農業工程學院學報』. 第35卷, 第7期, pp. 94-99.
- 朱小宝 (2018).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探析.”『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58-62.
- 朱燕 (2017). “準確把握新的社會階層的概念與屬性.”『人民論壇』. 第32期, pp. 78-79.
- 朱列 (2020). “加強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化”研究.”『福建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5期, pp. 70-78.
- 中共江蘇省委統戰部, 江蘇省社會科學院聯合課題組 (2007). “新的社會階層研究及統戰工作機制探討.”『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6期, pp. 53-58.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17). 『習近平關於社會主義政治建設論述摘編』.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統一戰線工作部 (2024). 『習近平總書記關於做好新時代黨的統一戰線工作的重要思想學習讀本』.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黃浦區委統戰部·復旦大學統戰理論研究基地 (2018).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的三種模式——以上海市黃浦區“海燕博客”為例.”『上海黨史與黨建』. 第8期, pp. 40-42.
- 中國統一戰線理論研究會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理論江蘇研究基地 (2022). 『新時代新的社會階層人士思想引領與統戰工作研究』. 南京: 河海大學出版社.
- 中國統一戰線理論研究會統戰基礎理論上海研究基地·中國特色社會主義統一戰線理論研究基地 主編 (2019). 『新時代統一戰線研究』. 北京: 華文出版社.
- 中央統戰部八局課題組 (2017). “開拓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新局面.”『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46-50.
-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21). “中國外資統計公報” [https://wzs.mofcom.gov.cn/cms\\_files/oldfile/wzs/202111/20211125164038921.pdf](https://wzs.mofcom.gov.cn/cms_files/oldfile/wzs/202111/20211125164038921.pdf). (2026년 1월 12일 검색)

- 陳佩 (2023). “新的社會階層聯誼組織助力鄉村振興研究——以湖南省衡陽市“新階聯”爲例.” 『農村經濟与科技』. 第34卷, 第16期, pp. 144-146+185.
- 陳喜慶 (2012). “統一戰線理論研究需要着力創新的十大課題.” 『中國統一戰線』. 第10期, pp. 4-5.
- 陳喜慶 (2021). “關於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的几个問題.”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4-15.
- 陳喜慶 (2022). “關於加強網絡統戰工作的思考.” 『中央社會主義學院學報』. 第6期, pp. 16-20.
- 崔瑀·張海霞·王浩 (2020).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社會化運行方式研究.” 『廣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30-38.
- 何鳳梅·宋玉忠 (2011). “新階層統戰工作社會化問題与對策探析.” 『福建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42-44.
- 何虎生·董佳·李桂華 (2024). 『中國共產黨統一戰線思想史』.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 郝麗 (2021). “社會結構變化背景下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策略重構.” 『中州學刊』. 第6期, pp. 21-25.
- 海群 (2020). “新時代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探析.” 『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1期, pp. 50-54.
- 海群 (2022). “把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起來爲新時代建功立業.” 『四川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25-29.
- 杭州市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課題組 (2018). “以平台化思維推進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杭州市“同心薈”統戰工作平台的實踐与思考.”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45-52.
- 胡芬芳 (2018). “論發揮新的社會階層人士的重要作用.” 『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5期, pp. 49-53.
- 胡芬芳 (2021). “新的社會階層人士助力經濟高質量發展研究.” 『福建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33-41.
- 胡芬芳·李艷霞 (2021). “新發展階段新的社會階層人士發展的新趨勢及應對.” 『湖南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2卷, 第6期, pp. 54-57.
- 胡芬芳·余武丞 (2019). “新的社會階層人士“組織起來”的影響因素与有效途徑.” 『云南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52-57.
- 黃佳慧 (2022). “經濟高質量發展背景下新的社會階層人士獨特優勢.” 『商業經濟』. 第8期, pp. 142-143.
- 黃西勤 (2021). “樹牢法宝意識, 凝聚新階層, 展現新作為.” 『廣東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 26.

- 黃安 (2022). “新時代新的社會階層有序政治參與問題研究.” 『遼寧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2期, pp. 44-48.
- 黃天柱 (2018). “新的社會階層人士統戰工作的實踐創新路徑.” 『江蘇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6期, pp. 49-54.
- 黃曉翠 (2025). “新的社會階層人士助力新質生產力發展的理論邏輯與實踐路徑.” 『陝西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pp. 52-55.
- 侯德泉 (2007). “論新世紀新階段黨的統一戰線理論的新發展.” 『中州學刊』. 第1期, pp. 32-36.
- 侯天佐·孫繼蕾 (2018). “新的社會階層代表人士成長規律研究.” 『黑龍江省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pp. 29-32.

| 논문투고일 : 2026년 02월 09일 |

| 논문심사일 : 2026년 02월 27일 |

| 게재 확정일 : 2026년 03월 04일 |

| ABSTRACT |

**A Study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olicy toward the New Social Strata during the  
Xi Jinping Er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Front**

**Taehee Yoon**

(Chinese Studies Major,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CP) policies toward the new social strat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Front, with a focus on the Xi Jinping era. Since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ing-up, the new social strata have rapidly emerged and been defined by the CCP as "builders of the cause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reby becoming a key target of the United Front. As the CCP emphasized the need to organize the new social strata, it established the Bureau of New Social Strata Affairs and convened National United Front Work Conferences, making United Front work targeting the new social strata increasingly concrete and systematic. In this process, various initiatives, including New Social Strata Associations, United Front Work Practice Innovation Bases for the new social strata, and New Social Strata Service Teams, were actively promoted. From the state's perspective, these policies have produced several achievements, such as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al influence over the new social strata, the promotion of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new social strata, and the enhancement of possibilities for their broad mobilization and integr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se efforts have also exposed a number of challenges, including difficulties in organizing the new social strata due to their complexity and fluidity,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New Social Strata

Associations, and the relatively low level of participation by members of the new social strata in state-led organizational initiatives. In light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explore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CCP's policies toward the new social strata in the Xi Jinping era.

- Key words: China, United Front, Chinese Communist Party, New Social Strata, Xi Jinping

